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변호사'

글 정재학 작가/사진 민영주



2017년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는 요즘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중이다. 조사단 신분증을 패용한 박 변호사 오른쪽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인다.

※ **박준영 변호사**: 1974년 전남 완도 출생. 노화중고 졸업, 목포대 전자공학과 중퇴, 제44회 사법시험 합격(2002년), 사법연수원 35기 수료(2006년), 박준영변호사법률사무소 개소(2007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냄. 아산상 자원봉사상, 변호사공익대상, 노근리평화상 등 수상. 부인과의 사이에 2남1녀.

박준영(44) 변호사를 인터뷰하러 가기 전 날, 급하게 영화 한 편을 챙겨봤다. 2000년 8월에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2017년 초 개봉한 영화, ‘재심’이었다. 이 영화에서 배우 정우가 맡은 이준영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영화를 보면서 21세 기에도 이런 일이 가능한지 두 눈을 의심했다. 죄 없는 청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거짓 자백으로 10년이나 옥살이를 했고, 사건 몇 년 후 진범이 잡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증거가 부족하다고 돌려보낸 사건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아서 소년의 무죄를 밝혀냈다. 재심이란 이미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대법원까지 1, 2, 3심을 거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재판하겠다는 결정이 내려면, 당시 판결이 명백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재심 결정이 난다는 것은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에게는 수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 변호사는 영화의 소재인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탈북자 간첩 사건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사람들의 재심을 맡아 잇달아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려고 시작

박 변호사는 전남 완도군의 노화도 출신이다. 땅끝마을에서 배로 한참을 더 가야 닿을 수 있는 작은 섬이다.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마음으로 의지했던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중학교를 1등으로 입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광주로 떠났다. 하지만 1년 만에 자퇴하고 서울로, 인천으로 떠돌았다. 프레스공장, 정비공장에서 막일을 하거나 배달일도 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래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주먹질을 하는 비행 청소년이 됐다. 그가 사건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을 편견 없이 대한 것도 자신이 한때 비슷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졸업장만이라도 받으라는 아버지와 새엄마의 권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친구들보다 1년 늦었지만 1994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심 변호를 통해 인권 침해와 불법수사 방지에 기여해온 박준영 변호사.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인지 솔직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목포대 전자공학과에 입학, 대학생이 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학기 만에 자퇴하고 고시공부에 뛰어들었다. 어머니의 빗바랜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5년간 악착같이 공부한 끝에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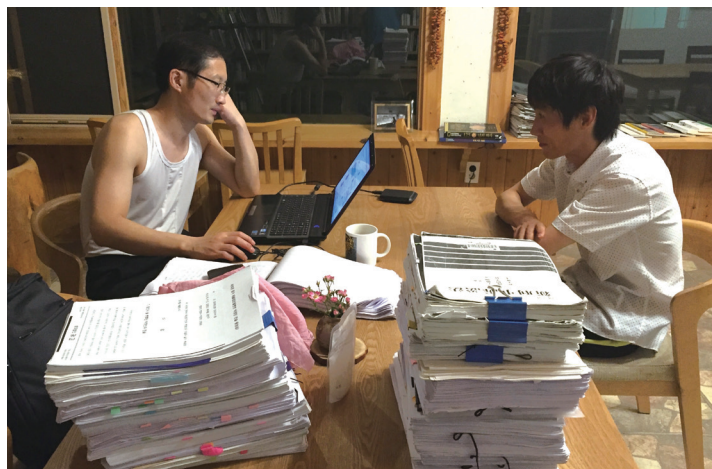
처음부터 정의감에 불타는 공익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휴학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절, 그의 꿈은 연봉을 많이 주는 로펌에 들어가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출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벌도, 집안도, 인맥도 없이 부양가족만 많은 그를 찾는 곳은 없었다. 변호사가 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친구나 친척들조차도 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다.

“네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건 정말 대단한데, 네 능력을 어떻게 믿어?”

그것이 현실이었다. 살 길은 국선변호밖에 없었다. 변호사가 늘어난 지금이야 국선변호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하지만 당시는 돈이 안 되는 일이라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민선변호를 하면 한 건에 수백만 원의 수입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선변호는 한 건을 맡아야 20만~3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남들과 비슷하게 수입을 올리려면 10배는 더 일해야 했다. 미친 듯이 일했다. 명절 때도 고향에 가지 않았고, 1년 365일 쉬지 않았다. 매일 밤늦도록 사건기록에 파묻혔고, 링거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수액을 맞으면서 자판을 두드렸다. 워낙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법원을 드나들 때도 서류가방이 아니라 보따리를 들고 다닐 정도였다.

“저러다 빌딩 사겠네.”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진 후 박준영 변호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3인조'와 함께했다(2016. 7. 8). 재심 청구인과 늦은 시간까지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모습(왼쪽부터).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은 ‘국선 재벌’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기록을 보고, 법리와 판례 공부도 많이 해야 했다. 변론서를 하나 쓰더라도 더 잘 쓰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성장하고 실력도 쌓였다. 국선변호에 파묻혀 지내던 2008년 어느 날 그는 변호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운명적인 사건을 만난다.

## 운명적인 사건과의 만남

2007년 5월, 16세 소녀가 고등학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범인으로 노숙인 두 명과 가출 청소년 다섯 명이 지목됐다. 일명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불린 사건이다. 국선변호로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특별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한 명도 아니고 일곱 명 모두 자신들이 죽었다고 자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던 청소년상담센터의 선생님들만은 달랐다.

“변호사님, 아이들이 억울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박 변호사를 귀찮도록 찾아와서 부탁했다. 한 아이가 쓴 편지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7명이 자백한 사건이다 보니 수사기록만 해도 수천 페이지에 달했다. 뻔해 보이는 사건이었는데 그 많은 기록을 들춰서 문제를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선생님, 정 그러시면 노트북을 하나씩 가져오셔서 아이들 별로 사건기록을 검토해서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상담센터에서 퇴근하면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와서 밤늦도록 자료를 살펴보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자백에서 모순을 발견해 표로 정리했다.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놓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는 선생님들의 눈에는 잘못된 점이 보였다.

‘이건 무죄다.’

박 변호사는 문제를 인식하고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을 수십 차례 답사하고 CCTV 기록과 검찰의 진술영상도 꼼꼼히 확인했다. 아이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변호사 앞에서조차 “자신들이 죽었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범행과 무관했다. 경찰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판단력이 미숙하고 겁 많은 아이들이 거짓자백을 했음이 드러났다. 결국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청소년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고, 먼저 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노숙인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도움 없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최초의 살인사건 사례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이후 박 변호사는 자신의 바람처럼 유명해졌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다. 이제는 국선변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비싼 수임료의 형사사건 의뢰도 들어왔다. 사무실을 확장해 고용변호사 2명에 직원도 4명이나 채용하면서 제법 규모를 키워 나갈 수 있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모처럼 제주도도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날,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 전화가 또 다시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최승호 PD(현 MBC 사장)의 소개로 전화 드렸습니다. 탈북자 간첩사건인데 허위자백입니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였다. 장 변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최승호 PD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박 변호사는 ‘PD 수첩’의 최승호 PD가 자신을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한 마음에 앞뒤 재 보지도 않고 대뜸 오케이를 하고 말았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터넷으로 장경욱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나서는 아차 싶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중북 변호사’라고 비난하는 진보적인 변호사였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학생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이던 그는 잘 모르는 시국사건에 말려드는 것 같아서 핑계를 대고 발을 빼려고 했다. 그러던 중 여간첩 사건이 하나 더 터졌다.

“면회라도 한 번만 가주십시오.”

장경욱 변호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면회를 가보고 끝내려고 했다가 결국 그는 마음을 붙잡히고 말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탈북자 간첩들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사무실 규모를 키우고, 사건을 더 많이 수임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였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동포인 그들이 억울한 상황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살자.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지.’

사건을 맡긴 했지만 대부분의 증거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건과 관련 있는 탈북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들으려고 했다. 허위자백 사건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확인하다 보면 새벽에 신문과 요구르트 배달원을 보면서 퇴근하는 날도 많았다.

탈북자 간첩사건에 대한 그의 열정과 반비례해서 사무실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 돈 되는 사건을 마다하고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 사무실 유지가 어려워졌다. 고용변호사들을 차례로 내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 변론을 하는 박 변호사에게 변호사교육문화회관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 회관 옥상에 올라가면 검찰청(24p 참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오른쪽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보냈고, 직원들도 떠나보냈다. 사무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1억 원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끝이 보였다. 파산 직전이었다. 잇단 재심사건을 함께한 ‘영혼의 파트너’ 박상규 오마이뉴스 기자가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2016년 8월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스토리펀딩에 올린 제목이다. 펀딩이 시작되자마자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펀딩 3일 만에 모금액이 1억 원을 돌파했고, 펀딩 기간인 93일 동안 5억6천2백36만 원이 모였다. 후원 건수는 1만7천8백97건으로 참여 시민 1명당 평균 3만1천여 원을 후원한 셈이다. 다음 스토리펀딩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었다. 시민들이 모아준 후원금의 액수도 컸지만 1만7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준 데 더 감격했다.

시민들의 관심으로 다시 태어난 박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보다 사법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은 강연이나 기고, 집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심사건이 조금 뜸한 요즘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형제복지원 사건을 맡고 있다.

검사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현실에서 돈 한 톨 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박준영 변호사야말로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